

정시와 학과

세 장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 ◆ 이 책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공개된 요강·공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 1부 · 학과를 고른다 이름에 속지 않는 법 · 5편
- 2부 · 계열마다 다른 것 의약·지역인재·계약학과 · 3편
- 3부 · 정시로 간다 수시와 다른 시험입니다 · 4편
- 4부 · 원서를 낸다 되돌릴 수 없는 자리들 · 4편

1 부

학과를 고른다

이름에 속지 않는 법

무전공, 유형1과 유형2는 다릅니다
무전공으로 들어가면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나
첨단학과 — 이름만 새 곳과 진짜 새 곳
학과 이름에 속지 않는 법
진로가 안 정해졌을 때

2 부

계열마다 다른 것

의약·지역인재·계약학과

의약학 계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지역인재전형 — 누가 쓸 수 있나

계약학과·채용조건형

3 부

정시로 간다

수시와 다른 시험입니다

정시는 수시와 다른 시험입니다
가·나·다군, 세 장을 어떻게 나누나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대학마다 셈이 다릅니다

4 부

원서를 낸다

되돌릴 수 없는 자리들

정시 총원은 어디까지 도는가
교차지원
재수·반수, 세어 보고 정하십시오
정시 원서 점검표

83 · 차례

무엇이 어디에 있나

1. **01** 무전공, 유형1과 유형2는 다릅니다 9
2. **02** 무전공으로 들어가면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나 14
3. **03** 첨단학과 — 이름만 새 곳과 진짜 새 곳 19
4. **04** 학과 이름에 속지 않는 법 24
5. **05** 진로가 안 정해졌을 때 29
6. **06** 의약학 계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34
7. **07** 지역인재전형 — 누가 쓸 수 있나 39
8. **08** 계약학과·채용조건형 44
9. **09** 정시는 수시와 다른 시험입니다 49
10. **10** 가·나·다군, 세 장을 어떻게 나누나 54
11. **11** 표준점수·백분위·등급 59
12. **12** 대학마다 셈이 다릅니다 64
13. **13** 정시 충원은 어디까지 도는가 69
14. **14** 교차지원 74
15. **15** 재수·반수, 세어 보고 정하십시오 79
16. **16** 정시 원서 점검표 84

01 · 머리말

이 책을 왜 드리나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료입니다.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과 파는 말이 섞여**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것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시면 **첫 시간을 오해를 푸는 데** 씁니다.

이 책을 읽고 오시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과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눠 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책 곳곳에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 이걸 상담 없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 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자료라야 나머지 말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출처를 달았고, 없으면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숫자는 **공개된 모집요강·공시 자료·국가 통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 편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리는 **「저희 판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CUBE

2026년 8월

02 · 먼저 읽을 것

두 물음을 함께 봅니다

이 책은 두 물음을 한데 묶었습니다 —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따로 다루는 자료는 많은데 함께 놓고 보는 자료가 드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둘이 같이 정해집니다.

정시는 세 장입니다. 수시 여섯 장과 달리 같은 군에 두 장을 못 씁니다. 그러니 세 장을 어느 학과에 쓸지가 곧 전공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과 이름만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무전공·첨단학과·계약학과처럼 같은 이름 아래 아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1부가 그것을 가르는 편들입니다.

네 부의 차례

부	무엇을	이 부의 물음
1부	학과 고르기	이름이 같은데 왜 다른가
2부	계열별 특성	의약·지역인재·계약학과는 무엇이 다른가
3부	정시의 구조	무엇으로 겨루고 어떻게 셈하나
4부	원서와 그 뒤	충원·교차지원·재수

수능을 보고 나서 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는 3부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다만 1부의 첫 세 편은 꼭 보십시오 — 무전공에 넣고 나서 배정 방식을 알게 되는 일이 매년 있습니다.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개별 학과의 합격선을 심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입결 자료가 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한 해의 합격선은 그 해의 응시자와 난이도가 만든 숫자입니다. 다음 해에 그대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기준선처럼 보시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대신 분포와 구조를 봅니다 — 총원이 어디까지 도는지, 대학마다 셈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해가 바뀌어도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03 · 숫자부터

두 가지가 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무전공으로 뽑는 데가 늘었다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전공」이라는 한 이름 아래 성격이 다른 둘이 들어 있습니다. **유형1**과 **유형2**입니다. 이걸 가르치 않으면 「무전공 갔다가 원하는 과 못 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세어 보았습니다.

갈래	모집	대학	경쟁률	어디로 갈 수 있나
유형1	4,822명	33	12.3:1	학교 안 거의 전부
유형2	7,152명	29	10.8:1	그 단과대·계열 안에서만

둘을 합치면 **11,974명**, 40개 대학입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 수시 전체 모집의 상당한 몫입니다.

차이는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유형1은 **학교 안의 거의 모든 학과**가 열려 있고, 유형2는 **그 묶음 안에서만** 고릅니다. 학과 이름을 보시면 결이 보입니다 —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자율전공학부」처럼 학교 이름을 달고, 유형2는 「AI인문대학」·「IT대학 자율학부」처럼 **단과대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전공 합격」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원서를 쓰기 전에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요강에 대개 **[유형1]·[유형2]**로 적혀 있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을 저희가 집계.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

04 · 무엇이 다른가

열리는 문의 크기

	유형1	유형2
이름	자유전공학부 · 자율전공학부	단과대 이름 + 자율전공
뽑을 때	계열 구분 없이	그 계열로
나중에	학교 안 거의 전부	그 묶음 안에서
모집 규모	4,822명	7,152명
대학 수	33곳	29곳

22개 대학이 둘을 다 둡니다. 같은 학교에 유형1 자유전공학부도 있고 유형2 「○○대학 자율학부」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었나

대학이 학생을 **학과 없이 뽑도록** 제도가 밀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전부 열어 두면**(유형1) 인기 학과로 쏠려 일부 학과가 비고, **묶음 안에서만 고르게 하면**(유형2) 그 쏠림이 덜합니다.

그래서 **유형2가 수로는 더 많습니다** — 7,152명 대 4,822명입니다. 대학이 **덜 위험한 쪽**을 고른 셈입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유형1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대신 인기 학과로 가려는 경쟁이 학교 안에서 벌어집니다. 유형2는 선택지가 좁은 대신 **그 안에서는 덜 다뭉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과에 가고 싶은지가 얼마나 정해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뒤에서 그 판단을 다루겠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유형 구분은 요강 표기를 따랐습니다. 대학이 왜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05 · 어느 전형으로 뽑나

갈래가 고르게 열려 있습니다

무전공은 특정 전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갈래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전형	유형1	유형2	무엇을 뜻하나
학생부교과	61줄	159줄	내신으로 갑니다
학생부종합	35줄	107줄	서류를 읽습니다
논술	26줄	57줄	내신이 약해도 열려 있습니다

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전공은 「학과를 못 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모집 단위일 뿐입니다. 교과로도 뽑고 학종으로도 뽑고 논술로도 뽑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 내신이면 교과, 서류가 두꺼우면 학종, 글로 푸는 것이 강하면 논술입니다. 무전공이라고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붙은 뒤」입니다. 그것이 이 자료의 핵심이고, 원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경쟁률을 볼 때 조심할 것

무전공 경쟁률 중앙값이 11.1:1입니다. 전체 교과(9:1)·학종(12.4:1)과 견주면 비슷한 자리입니다.

다만 무전공은 모집 인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자리에 수십 명, 많으면 백 명 넘게 뽑습니다. 모집이 크면 경쟁률이 안정되고 충원도 많이 돕니다 — 앞서 본 대로 예비번호는 $\text{번호} \div \text{모집 인원}$ 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전형 갈래는 전형명으로 나뉘었습니다.

06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어디서
1	유형1인지 유형2인지 확인합니다	요강의 모집단위 표기
2	유형2라면 그 묶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요강 · 학과 안내
3	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대학 안내 —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4	가고 싶은 과가 그 안에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쓰면 안 됩니다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형2인데 가고 싶은 과가 그 묶음 밖에 있으면, 붙어도 그 과에 못 갑니다. 이것 모르고 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전공에 원서를 넣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이 자리가 **유형1인지 유형2인지** 요강에서 확인했는가
- ☐ 유형2라면 **어느 단과대·계열** 의 묶음인가
- ☐ 그 묶음에 **어떤 학과들이** 들어 있는지 목록을 보았는가
- ☐ 가고 싶은 과가 **그 목록에 있는가**
- ☐ **배정 시기** 가 언제인가 — 1학년 말인가 2학년인가
- ☐ 배정에 **성적이 쓰이는가**
- ☐ 인기 학과에 **정원 제한** 이 있는가
- ☐ 못 가게 됐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았는가

뒤의 넷은 **요강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의 학사 안내나 입학처에 물어셔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 그 확인법을 다룹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공을 「일단 들어가고 보자」로 쓰지 마십시오.** 상담에서 이 말이 편합니다 — 선택지가 늘어난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유형2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고, 유형1도 인기 학과는 경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를 확인하고 쓰시면 좋은 자리이고, 확인 없이 쓰면 학교만 정하고 학과는 운에 맡기는 셈입니다.

07 · 자주 묻는 것

무전공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무전공이 합격선이 낮은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개별 학과의 합격선을 신지 않고, 무전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전공은 모집 인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이 크면 합격선이 넓게 퍼지고 충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기 학과보다는 낮고, 비인기 학과보다는 높은」 자리에 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학교 전체 평균에 가깝다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낮아 보인다고 노리는 자리로 삼지는 마십시오. 낮은 이유가 「나중에 원하는 과에 못 갈 수 있어서」 인 경우가 있습니다.

Q. 의대나 사범대도 무전공으로 갈 수 있나요?

대개 안 됩니다. 유형1이라도 빠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흔히 빠지는 것은 의약학 계열, 사범대, 예체능입니다. 따로 뽑아야 하는 까닭이 있는 학과들입니다 — 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자격 과정이 붙어 있거나, 실기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 「자유전공이니깐 다 갈 수 있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학과 목록이 요강이나 학사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과가 그 목록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는 데 십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십 분이 4년을 정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무전공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유형1인지 유형2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야 유리한지 아닌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신지 않습니다. 유형 구분과 배정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니 지원 전에는 목표 대학의 요강과 학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08 · 먼저 사실부터

요강에 안 적혀 있습니다

「무전공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원하는 과로 갈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요강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2027 수시 요강 6,482줄을 훑었는데 무전공 448줄 가운데 배정 방식이 적힌 것은 없었습니다. 요강은 뽑는 규칙을 적는 문서이고, 배정은 입학한 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나. **대학의 학사 안내**에 있습니다. 학칙, 전공 배정 지침, 신입생 안내, 학과 홈페이지 — 대학마다 자리가 다릅니다.

이것이 무전공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지원자는 요강을 읽고 원서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규칙은 요강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요강에 없는가

요강은 「누구를 어떻게 뽑는가」를 적는 문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고, 그 안에 **입학 뒤의 일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배정은 **학사**의 일입니다. 학칙과 시행세칙이 정하고, 그건 **입학처가 아니라 교무처 소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가 다르니 문서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 규정은 요강보다 자주 바뀝니다.** 요강은 한 해 전에 확정해 공개해야 하지만, 학칙은 그 사이에도 고칠 수 있습니다. **재작년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가 지금과 다를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숫자가 없습니다

다른 편에는 요강에서 센 숫자를 실었습니다. 이 편에는 **실을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대학마다 다르고 공개 자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확인하는 법**을 드립니다. **무엇을 물을지 알면 답은 전화 한 통에 나옵니다.** 이 편은 그 「무엇을」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 배정 방식이 적힌 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배정 규정은 대학별 학사 자료에 있습니다.

09 · 무엇이 다른가

배정 방식은 세 가지

대학마다 다르지만 큰 갈래는 셋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1학년을 보내는 법이 달라집니다.

방식	어떻게 정하나	1학년에 할 일
성적순	1학년 학점으로 줄을 세웁니다	1학년 학점이 전부입니다
정원 없음	원하면 다 갑니다	고민 없이 고르시면 됩니다
섞음	인기 학과만 정원을 두고 나머지는 자유	어느 과가 제한인지를 압니다

셋째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립니다 — 「자유전공이니까 자유롭게」로 알고 갔다가 가고 싶던 그 과만 정원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순이면 1학년이 고3만큼 중요합니다

이 점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순 배정인 학교에서는 1학년 1·2학기 학점이 학과를 정합니다. 대학에 붙었다고 한 학기 쉬면 그 한 학기가 4년을 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거꾸로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3년이 쌓인 것이라 바꾸기 어렵지만, 대학 1학년 학점은 새로 시작합니다. 고교 내신으로는 못 갔을 학과에 대학에서 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다섯입니다

배정 시기(1학년 말인가 2학년인가) · 기준(성적인가 지망인가) · 정원 제한이 있는 학과 · 제외되는 학과 · 못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다섯을 알면 무전공이 나에게 맞는 자리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다 대학에 물으면 답해 줍니다.

배정 방식의 갈래 나눔은 저희가 대학 학사 안내를 살펴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목표 대학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10 · 어디서 확인하나

네 곳을 보시면 됩니다

Q. 하나 — 대학 입학처에 전화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입학처는 이런 문의를 늘 받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실례가 아닙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면 전공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정원이 걸린 학과가 있습니까?」

입학처가 학사 부서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넘겨 준 곳에 다시 물으시면** 됩니다.

Q. 둘 — 대학 홈페이지의 학칙·규정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과 시행세칙**을 공개합니다. 「전공 배정」「전공 진입」「소속 변경」 같은 말로 찾으시면 나옵니다.

규정은 딱딱하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안내 문구는 바뀌어도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셋 — 그 학부의 홈페이지

자유전공학부·자유전공학부가 **따로 홈페이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전공 배정 안내**」가 붙어 있곤 합니다.

여기에는 **지난해에 어느 과에 몇 명이 갔는지**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게 있으면 **가장 쓸모 있는 자료**입니다 — 어느 과가 붐비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Q. 넷 — 대학 설명회에서

설명회에 가시면 **이것부터 물으십시오**. 교육과정이나 취업률은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배정 실무는 담당자만 압니다**.

특히 「**작년에 지망이 몰린 과가 어디였나요**」를 물으시면 숫자로 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값진 답입니다.

넷 가운데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 무료입니다**.

확인 방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학마다 공개 범위와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11 ·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는 차례와 점검표

확인한 뒤에는 **이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례	물을 것	답에 따라
1	가고 싶은 과가 배정 목록에 있는가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2	그 과에 정원 제한 이 있는가	있으면 성적이 필요합니다
3	1학년 학점 을 낼 자신이 있는가	성적순이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4	못 갔을 때 차선 이 받아들일 만한가	아니면 학과로 지원하십시오

4번을 꼭 세워 두십시오. 무전공은 「원하는 과에 갈 가능성」을 사는 것이지 보장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차선이 건널** 만하면 좋은 선택이고, 아니면 위험한 선택입니다.

대학에 물어볼 여덟 가지

☐ 전공 배정은 **언제** 이뤄지는가

☐ 기준은 **성적인가 지망인가**

☐ 성적이라면 **어느 학기까지** 보는가

☐ **정원이 걸린 학과** 가 있는가 — 어디인가

☐ **제외되는 학과** 가 있는가

☐ 지난해 **지망이 몰린 과** 는 어디였는가

☐ 1지망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 배정 뒤에 **바꿀 수** 있는가

이 여덟을 물으면 **전화 한 통에 대개 다 답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이 답이 원서를 쓸지 말지를 정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컨설팅으로 사실 정보가 아닙니다.** 배정 규정은 **대학이 답해 주는 것**이고, 그 대학 담당자보다 정확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담에서 「무전공은 이렇습니다」라고 **일반론으로 말하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 **대학마다 다른 것이 이 주제의 전부**입니다. 전화 한 통이 상담 한 시간보다 정확합니다.

12 · 자주 묻는 것

배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배정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흔한 방식은 2지망·3지망을 함께 적게 하는 것입니다. 1지망에서 밀리면 2지망으로 갑니다. 이 경우 2지망을 무엇으로 적느냐가 실제로 중요해집니다 — 많은 학생이 1지망만 생각하고 2지망을 대충 적습니다.

제적이나 유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배정됩니다. 다만 그 「어딘가」가 마음에 드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원서를 쓰기 전에 「최악의 경우 어느 과일까」를 그려 보십시오. 그 과에 다닐 수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Q. 전과와 무전공 배정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무전공의 값입니다.

전과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다른 과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개 정원의 몇 %로 제한되고, 성적 요건이 붙고, 받는 과가 안 받으면 못 갑니다. 문이 좁습니다.

무전공 배정은 애초에 소속이 없는 상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전과보다 문이 넓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학과로 들어가서 전과하면 되지」와 「무전공으로 들어가서 배정받자」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뒤엣것이 대체로 수월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기 학과는 무전공 배정에서도 정원이 걸립니다.

한 줄로 남기면

무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요강에 없습니다. 대학에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고, 그 한 통이 4년을 정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와 대학 학사 안내를 살펴 정리한 것입니다. **배정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반드시 목표 대학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이나 배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13 · 숫자부터

이름에 든 낱말로는 493줄입니다

「반도체·AI 학과가 유망하다던데요.」

학부모 조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겠다고 답한 항목**이 첨단학과 모집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첨단**」이라는 이름을 단 학과가 다 같은 곳은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 곳과 실제로 새로 만든 곳이 섞여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학과 이름에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첨단·배터리·바이오** 같은 낱말이 든 자리를 세었습니다.

무엇	얼마나
이름에 그 낱말이 든 줄	493줄
모집 인원	5,663명
그런 학과를 둔 대학	37곳
경쟁률 중앙값	9.6:1
수능최저를 거는 비율	45%

37개 대학, 5,663명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첨단학과가 그만큼 늘었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센 것은 **이름에 낱말이 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것과 새로 만든 것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요강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가르는 법**을 다룹니다. 숫자보다 그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에서 학과 이름의 낱말로 저희가 집계. **이름으로 센 것이라 실제 성격은 학과마다 다릅니다.**

14 ·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곳	무엇이 달라졌나	어떻게 알아보나
이름만 바꾼 곳	기존 학과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교육과정이 예전과 거의 같습니다
안에서 나뉜 곳	기존 학부 안에 전공을 새로 뒀습니다	교수와 시설을 나눠 씁니다
새로 만든 곳	정원과 교원이 늘었습니다	새 교수·새 시설·기업 협약

셋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 곳도 원래 교육과정이 좋으면 좋은 학과입니다. 다만 「**새로 생겼으니 뭔가 다르겠지**」로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왜 이름을 바꾸나

지원자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대학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 학생이 그 이름을 보고 오니 학교가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단 분야로 정원을 늘려 주거나 예산을 붙여 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이름과 편제를 고칩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돈과 교원이 들어온 것**이라 결이 다릅니다.

지원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름이 아니라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면에서 보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갈래 나눔은 저희가 요강과 대학 공시를 살피 정리한 것입니다. 공식 분류가 아니며, 한 학과가 둘에 걸치기도 합니다.

15 · 가르는 법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Q. 하나 — 교육과정 편제표

가장 정확합니다. 대학 홈페이지의 학과 페이지에 대개 있습니다. 「교육과정」·「커리큘럼」으로 찾으시면 나옵니다.

보실 것은 전공 과목의 이름입니다. 반도체학과인데 과목이 전자공학과와 거의 같다면 이름을 바꾼 쪽에 가깝습니다. 공정·소자·설계처럼 그 분야의 과목이 여럿 있으면 실제로 짜인 것입니다.

한 시간이면 읽으십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 표대로 배웁니다.

Q. 둘 — 언제 생겼나

요강에 「신설」이라고 적혀 있거나, 학과 홈페이지에 연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뽑는 학과는 참고할 입결이 없습니다. 선배도 없고 교육과정도 아직 다 안 돌았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래된 학과가 이름만 바꾼 경우는 입결과 진로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알아보기 쉬운 쪽입니다.

Q. 셋 — 교원이 몇 명인가

대학알리미에 전임교원 수가 공시됩니다. 학과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를 세어 보셔도 됩니다.

정원은 큰데 전임교원이 적으면 다른 과 교수가 와서 가르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에게 배우는가」는 달라집니다.

교수의 전공 분야도 보십시오. 반도체학과인데 교수 전공이 대부분 다른 분야면 그것이 답입니다.

Q. 넷 — 기업과 무엇이 걸쳐 있나

협약·계약이 있는지를 봅니다. 있으면 학과 홈페이지에 크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협약」과 「채용 보장」은 다릅니다. 장학금만 주는 협약도 있고, 인턴만 주는 협약도 있습니다. 무엇을 주는 협약인지를 확인하십시오 — 다음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넷 다 대학이 공개한 자료로 확인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 및 각 대학 학과 안내. 확인 방법은 저희 판단이며, 학과마다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

16 ·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교육과정을 읽습니다	4년 동안 배울 것입니다
2	언제 생겼는지 봅니다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갑니다
3	교원을 세어 봅니다	누가 가르치는가
4	그다음에 합격선을 봅니다	여기서부터가 성적 이야기입니다

4번을 마지막에 둔 까닭이 있습니다. 첨단학과는 새로 생긴 곳이 많아 입결이 없거나 한 해뿐입니다. 앞서 보셨듯 한 해 숫자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 합격선보다 교육과정이 더 믿을 만한 자료인 자리입니다.

수능최저를 함께 보십시오

첨단학과의 45%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전체 수시 평균(46%)과 비슷합니다. 「새 학과라 문이 험겅겅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첨단학과를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교육과정 편제표 를 직접 읽어 보았는가
- ☐ 전공 과목이 그 분야의 것 인가 — 기존 학과와 거의 같지 않은가
- ☐ 언제 생긴 학과인가
- ☐ 참고할 입결이 몇 해치 있는가
- ☐ 전임교원 이 몇 명인가 · 전공이 그 분야인가
- ☐ 기업 협약이 있다면 무엇을 주는 협약인가
- ☐ 수능최저 가 걸려 있는가
- ☐ 이 학과를 이름이 아니라 교육과정으로 고르고 있는가

마지막 항목이 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고, 교육과정은 4년을 정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학과가 유망하다**」는 말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4년 뒤 취업 시장이 어떨지 저희는 모르고, 안다고 하는 쪽은 지어내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 **그 학과에서 4년 동안 무엇을 배우는가**. 그건 편제표에 적혀 있고 **한 시간이면 읽으십니다**. 유망하다는 말보다 그 한 시간이 정확합니다.

17 · 자주 묻는 것**첨단학과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Q. 신설 학과는 피하는 게 좋은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잃는 것 — 참고할 입결이 없습니다. 선배가 없어 진로 정보도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돌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얻는 것 — 새 학과는 **학교가 힘을 실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과 장학금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도 정보가 없어 몰리지 않는** 해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리면 — **왜 만들었는지**가 보이는가입니다. 정부 사업이나 기업 협약처럼 **까닭이 뚜렷하면** 뒷받침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까닭이 안 보이면 **이름만 바꾼 쪽**일 수 있습니다.

Q. 반도체학과를 나오면 반도체 회사에 가나요?

학과가 진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나와 반도체 회사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 정원이 크기 때문입니다.

학과 이름이 좁으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같이 옵니다. 그 분야를 깊게 배우는 대신 **다른 길로 돌릴 때** 「이 학과는 그것만 배웠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넓은 학과(전자·컴퓨터)**와 **좁은 학과(반도체·AI)**는 성격이 다른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살에 진로를 좁게 정하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넓게 배우고 나중에 좁히는 길**도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첨단학과는 **이름이 아니라 편제표로** 고르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무엇을 배우는지**가 유망하다는 말보다 확실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집계는 학과 이름의 낱말로 센 것이라 **실제 성격은 학과마다 다릅니다**. 개별 대학·학과 합격선은 신지 않으며, 취업 전망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18 · 먼저 사실부터

이름은 대학이 정합니다

「경영학과면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 곳도 있고 많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학과 이름은 **법이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다른 것을 가리키고, 다른 이름이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2027 수시 요강 6,482줄을 보면 이런 일이 흔합니다.

어떤 일	보기
같은 이름, 다른 계열	같은 이름인데 한 곳은 인문 , 다른 곳은 자연 으로 뽑습니다
다른 이름, 같은 공부	전자공학·전기전자·반도체 — 편제표가 겹칩니다
학부 안의 전공	학부로 뽑고 나중에 전공을 정합니다
계열이 나뉜 학과	같은 학과인데 인문·자연을 따로 뽑습니다

맨 아랫줄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같은 학과 이름이 요강에 두 줄로** 나오고, 각각 다른 수능최저와 다른 지정과목을 겁니다. 어느 줄에 지원하는지를 잘못 고르면 **최저가 어긋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개별 대학·학과 사례는 실지 않고 유형만 정리했습니다.

19 ·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감추는 세 가지

하나 — 배우는 것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같은 「미디어학과」인데 한 곳은 **영상 제작**이 중심이고, 다른 곳은 **언론·저널리즘**이 중심이고, 또 다른 곳은 **데이터·플랫폼**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배우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둘 — 어느 단과대에 속하는가

이건 잘 안 보시는데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이름의 학과가 **공과대학에 있는 곳**과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속한 단과대가 다르면 **졸업 요건·복수전공 범위·교수진·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학위 이름도 달라집니다** — 공학사나 문학사냐가 나뉩니다. 취업이나 대학원에서 이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 — 어느 계열로 뽑는가

같은 학과를 **인문으로 뽑는 곳**과 **자연으로 뽑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지원 자격과 수능 반영에 곧장 걸립니다** — 자연으로 뽑으면 **수학 지정과목이나 과탐**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최저 문장이 「**수학(미적분/기하)**」로 못 박힌 자리가 272줄, 15개 대학입니다. **학과 이름만 보고 고르면 여기서 걸립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학과 성격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20 · 가 르 는 법

편제표가 답입니다

이름이 못 하는 일을 **편제표가 합니다**.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차 례	무엇을	어디서
1	전공 필수 과목을 봅니다	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
2	어느 단과대인지 봅니다	대학 조직도
3	학위 이름을 봅니다	학과 안내 · 학칙
4	요강에서 계열과 지정과목 을 봅니다	모집요강
5	두세 대학을 나란히 놓습니다	차이가 그때 보입니다

5번이 요령입니다. 한 학과만 보면 「그런가 보다」로 끝납니다. **같은 이름의 학과 셋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다른지가 바로 보입니다.

전공 필수만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전체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 열 개 안팎만** 보셔도 그 학과의 결이 나옵니다. 선택 과목은 학생마다 다르지만 **필수는 모두가 듣는 것**이라 그게 정체입니다.

졸업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봅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졸업 후 진로**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는 가능성이지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가 있으면 그게 훨씬 값집니다.

확인 방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과마다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

21 ·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학과를 고르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이름에 안 속습니다**.

차례	무엇을	왜
1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말로 적습니다	학과 이름 말고 내용 으로
2	그 내용을 가르치는 학과들 을 찾습니다	이름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3	편제표 로 건춥니다	여기서 진짜 차이가 나옵니다
4	요강의 계열·지정과목 을 확인합니다	지원 자격이 걸립니다

1번을 말로 적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학과 가고 싶다」가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배우고 싶다**」로 적으면, 경영·경제·산업공학·통계까지 **후보가 넓어집니다**. 이름부터 정하면 그 넓이를 못 봅니다.

학과를 고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배우고 싶은 것 을 학과 이름 말고 내용으로 적어 보았는가

☐ 그 내용을 가르치는 학과가 **여럿인지** 찾아보았는가

☐ 전공 필수 과목 을 읽어 보았는가

☐ 같은 이름의 학과 **둘셋을 나란히** 놓아 보았는가

☐ 어느 **단과대** 에 속하는지 확인했는가

☐ 학위 이름 이 무엇인지 보았는가

☐ 요강에서 **인문인지 자연인지** 확인했는가

☐ **지정과목** 이 걸려 있지 않은가

여덟째를 놓치면 원서를 못 씁니다. 자연으로 뽑는 자리에 수학 지정이 붙어 있는데 확률과통계를 골랐다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서열표를 외우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는 **이름과 합격선만** 담고 있고, 이 자료가 말한 **셋**을 다 빼놓습니다. **편제표**를 읽는 데는 **학과 하나에 십 분**이면 됩니다. 다섯 곳이면 한 시간입니다. **그 한 시간이 4년을 정합니다**.

22 · 자주 묻는 것

학과 이름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학부로 뽑는 곳은 어떤가요?

앞서 다룬 무전공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범위가 좁습니다.

학부로 뽑으면 1~2년 뒤에 전공을 정합니다. 그러니 그 학부 안에 어떤 전공이 있는지와 전공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기 전공에 정원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계공학부로 들어가면 다 기계공학 하겠지」가 아니라, 그 학부 안에서 다시 걸린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은 무전공과 같습니다 —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정원이 걸리는 전공은 어디인가.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면 답해 줍니다.

Q. 학과 이름이 특이하면 취업에 불리한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 두실 것은 있습니다.

이름이 낯설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뭐 하는 과인가요」를 여러 번 답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이나 면허가 걸린 분야는 학과 이름보다 이수 과목이 요건을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교원자격·기사자격 같은 것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요건을 못 채우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격이 목표라면 학과 이름이 아니라 「그 자격 요건을 채우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학과 안내에 대개 적혀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학과 이름은 **대학이 붙인 것**이고, 4년을 정하는 것은 **편제표**입니다. **같은 이름 셋을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차이가 그때 보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공개된 학과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사례와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 학과 성격과 자격 요건은 대학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학과에 확인하십시오.

23 · 먼저 사실부터**제도가 길을 여럿 두었습니다**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대요.」

고3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것을 문제로 여기고** 오십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제도는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제도가 열어 둔 길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엇	규모	언제 정하나
무전공(유형1)	4,822명	입학 뒤 학교 안에서 고릅니다
무전공(유형2)	7,152명	입학 뒤 그 묶음 안에서
학부 모집	—	1~2년 뒤 전공 선택
복수전공·부전공	—	입학 뒤 더합니다
전과	—	바꿉니다 — 문은 좁습니다

무전공만 11,974명입니다. 적은 자리가 아닙니다. 「정하고 오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진로가 안 정해진 것 자체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해지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건 다음 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복수전공·전과 제도는 대학 학칙에 따르며 대학마다 다릅니다.

24 · 무엇이 불리한가

「안 정한 것」 과 「안 한 것」 은 다릅니다

여기가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둘을 가르쳐야 합니다.

	안 정한 것	안 한 것
무엇	진로가 하나로 안 좁혀졌습니다	파고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여러 갈래에 흔적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학종에서	대체로 괜찮습니다	불리합니다
면접에서	바뀐 까닭을 말하면 됩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학종이 보는 것은 「일관성」 보다 「스스로 파고드는 사람인가」 에 가깝습니다. 관심이 바뀌어도 바뀐 까닭이 보이면 그것도 읽힙니다. 실제로 고1에 정한 진로가 끝까지 가는 학생은 많지 않고, 대학도 그것을 압니다.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안 파고든 3년입니다. 이걸 진로가 정해졌든 아니든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실 일은 이것입니다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미있는 것을 하나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나중에 진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파고든 방식이 남고, 그게 읽힙니다.

전형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학종(30,468명) — 진로보다 **깊이**를 봅니다. 안 정해도 됩니다.

교과(26,958명) — 내신만 셉니다. **진로와 무관합니다**.

논술(9,314명) — 그날 답안만 봅니다. **역시 무관합니다**.

즉 **수시 세 갈래 가운데 둘은 진로를 아예 안 봅니다**. 「진로가 없어서 수시를 못 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학종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25 · 그래서 무엇을

좁히는 차례

진로를 정하려 애쓰는 대신 **좁혀 가는 편**이 실제로 잘 됩니다.

차례	무엇을	어떻게
1	싫은 것부터 지웁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알기 쉽습니다
2	재미있었던 수업을 적습니다	과목이 아니라 어떤 순간 이었는지
3	그 결의 학과들 을 찾습니다	이름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4	편제표 를 읽어 봅니다	4년 동안 배울 것입니다
5	그래도 안 좁혀지면 무전공 을 봅니다	대학에서 정하는 길입니다

1번이 의외로 잘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안 떠올라도 「**이건 아니다**」는 대개 압니다. 지워 나가면 남는 것이 보입니다.

2번에서 「어떤 순간」이 중요합니다. 「수학이 좋다」보다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질 때가 좋다」가 훨씬 쓸모 있습니다. 뒤엣것으로는 수학·통계·공학·회계까지 이어집니다.

진로가 안 정해졌을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싫은 것** 을 적어 보았는가

- ☐ 3년 동안 **재미있었던 순간** 을 적어 보았는가

- ☐ 그게 **어떤 종류의 재미** 였는지 말로 풀어 보았는가

- ☐ 생활기록부에 **파고든 흔적** 이 하나라도 있는가

- ☐ 그 흔적이 **어느 학과와 이어지는지** 찾아보았는가

- ☐ **무전공** 이 어떤 자리인지 알아보았는가

- ☐ 무전공이라면 **배정 방식** 을 확인했는가

- ☐ **교과·논술** 은 진로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넷째가 「아니오」라면 **거기부터**입니다. 진로를 정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파고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3이라면 남은 학기 수업에서라도 하나를 잡으십시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검사나 진로 컨설팅을 서둘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지금 성향을 알려 줄 뿐 진로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정한 것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돈을 쓰실 자리가 있다면, 관심 있는 분야의 책 몇 권과 그 분야 사람과 이야기해 볼 기회입니다. 그쪽이 훨씬 정확합니다.

26 · 자주 묻는 것

진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생기부의 진로희망이 바뀌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맞춰 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진로희망이 3년 내내 같은데 **활동은 그것과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 둔 진로가 형식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진로가 바뀌었는데 **바뀐 흐름이 활동에 보이면** 그건 읽힙니다. 「A를 하다가 B가 궁금해져서 이렇게 옮겨 갔다」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것을 적으시고, **그것을 실제로 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 물으면 **바뀐 까닭을** 말하면 그만입니다.

Q. 일단 취업 잘 되는 과로 가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4년 뒤 취업 시장을 지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잘 되는 분야가 4년 뒤에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유망**」으로 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계산입니다.

둘째, **안 맞는 전공은 4년이 깁니다.** 학점이 안 나오고, 그러면 취업에도 불리해집니다. 취업을 보고 골랐는데 취업에 불리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맞는 것 여럿을 먼저 추리고, 그 안에서 전망을 보십시오. 전망부터 보고 맞는지 나중에 보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진로가 안 정해진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안 파고든 3년**이고, 그 둘은 다릅니다.

이 자료에서 제도와 모집 규모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이며, 나머지는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학생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자료는 진로나 취업 전망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7 · 숫자부터**경쟁률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의대·약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먼저 하나를 갈라 두겠습니다. **의약학 계열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의예·치의예·한의예·약학·수의예가 **수업 연한도 자격도 진로도 다릅니다**. 그리고 간호는 또 다른 자리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세어 보았습니다.

갈래	줄	모집	대학	경쟁률	최저
의·치·한·약 ·수의	217	2,560명	26	19.3:1	67%
간호	66	1,050명	19	12.8:1	62%

경쟁률 19.3:1입니다. 전체 교과(9:1)·학종(12.4:1)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67%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지원자는 많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표면 경쟁률과 실질이 크게 벌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 최저를 확실히 넘기는 학생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열려 있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

28 · 무엇이 다른가

수업 연한과 자격이 다릅니다

여섯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다릅니다.

갈래	수업 연한	무엇이 되나	결이 다른 자리
의예	예과 2 + 본과 4	의사	졸업 뒤 수련이 길게 이어집니다
치의예	예과 2 + 본과 4	치과의사	개원 비중이 높습니다
한의예	예과 2 + 본과 4	한 의사	교육과정이 크게 다릅니다
약학	6년 (통합)	약사	제약·연구로 가는 길이 넓습니다
수의예	예과 2 + 본과 4	수의사	동물병원 외에 검역·연구도
간호	4년	간호사	모집 규모가 큼니다

간호가 다른 자리에 있는 까닭이 보이실 것입니다. 4년이고, 모집이 1,050명으로 넓고, 경쟁률도 12.8:1로 낮습니다. 「의약학 계열」로 묶어 부르지만 지원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공통점은 둘입니다

하나 — 국가시험을 봅니다. 졸업만으로는 자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 4~6년 뒤에 시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둘 — 정원이 법으로 관리됩니다. 대학이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그래서 정원 변동이 뉴스가 되고, 그해 지원 판도가 크게 흔들립니다. 지원 연도의 모집 인원을 반드시 요강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업 연한과 자격 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대학·학과에 따라 학제가 다를 수 있으니 요강과 학과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29 · 어느 전형으로 뽑나

학종이 가장 큼니다

의약학 계열이 어느 전형으로 뽑는지도 봐 두실 만합니다.

전형	줄	무엇을 뜻하나
학생부종합	98	가장 큼니다 — 서류를 읽습니다
학생부교과	80	내신을 계산합니다
논술	38	수리·과학 논술이 대부분입니다

학종이 가장 큼니다. 이건 준비 방향을 바꾸는 사실입니다 — 내신만으로 되는 자리가 아니라 서류가 함께 읽히는 자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1부터 정해집니다

학종은 3년치 생활기록부를 읽습니다. 앞서 다룬 대로 **세특이 그 중심**이고, 그건 고3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의약학을 생각하신다면 **고1부터 과목 선택과 세특이 이어지게**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의대용 생기부」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과학을 깊게 파고든 흔적이면 됩니다.

논술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38줄이 논술입니다. 앞서 본 대로 **논술은 내신 비중이 작습니다**. 내신이 아쉬운데 수리·과학이 강한 학생에게는 이쪽이 실질적인 문입니다.

다만 **최저가 높은 편**이고 경쟁률도 큼니다. **기출을 한 번 써 보고 정하십시오** — 성적으로는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전형명 기준). 대학마다 전형 구성이 다릅니다.

30 ·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여섯 갈래 가운데 무엇인지 정합니다	고1~고2
2	과목 선택을 맞춥니다 — 지정과목 확인	고1 겨울
3	수능최저를 세어 봅니다	고2~고3
4	지역인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3 여름 전
5	그해 모집 인원을 확인합니다	요강 나온 뒤

4번을 놓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의약학 계열은 **지역인재 선발이 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경쟁 범위가 좁아지므로 크게 유리합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의약학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여섯 갈래 가운데 **무엇을** 볼 것인지 정했는가
- ☐ 그 갈래의 **수업 연한과 자격 과정** 을 아는가
- ☐ 수학 **지정과목** 이 있는지 요강에서 확인했는가
- ☐ 탐구를 과탐으로 못 박은 자리인지 보았는가
- ☐ 수능**최저** 를 계산해 보았는가
- ☐ **지역인재** 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그해 **모집 인원** 이 작년과 다른지 보았는가
- ☐ 학종이라면 **고1부터의 생활기록부** 가 이어지는가

셋째·넷째를 특히 보십시오. 의약학은 **지정과목이 걸린 자리가 많습니다**. 고1 겨울에 과목을 잘못 고르면 **고3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준비반」에 일찍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의약학은 **내신·수능·서류가 다 높아야 하는 자리**이고, 그건 특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오래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학생이 많습니다**. 좁게 짠 준비는 그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넓게 잘하는 쪽이 의약학에도 유리하고, 아닐 때도 남습니다**.

31 · 자주 묻는 것

의약학 계열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정원이 늘면 들어가기 쉬워지나요?

그 해에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첫째, 정원이 늘면 지원자도 늘니다. 「올해 늘었다」는 뉴스를 모두가 봅니다. 늘어난 정원만큼 문이 넓어지지 않는 해가 있습니다.

둘째, 늘어난 자리가 어디에 붙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역인재로 붙는 경우가 있고, 특정 전형에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늘었다」가 「내가 쓰는 전형이 늘었다」는 아닙니다.

그러니 뉴스가 아니라 **요강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십시오. 작년 요강과 나란히 놓으면 **어디가 늘었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Q. 재수·삼수가 많다던데 현역은 불리한가요?

수시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시의 상당수가 **학생부종합**입니다 — 앞서 보신 대로 의약학도 학종이 가장 큼니다. 학종은 **3년치 생활기록부**를 읽는데, **졸업생은 그것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현역이 불리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졸업생이 유리한 쪽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정시와 최저가 높은 전형**에서 졸업생 비중이 큼니다.

그러니 현역이라면 **학종과 서류가 읽히는 자리에 무게를 두시는 편이 맞습니다**. 「**어차피 재수해야 한다**」로 고3을 흘려보내면 그 자리마저 잃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의약학은 여섯이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학종이 가장 큼** — 고1부터의 생활기록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과 경쟁률은 실지 않습니다. 정원과 전형은 해마다 크게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32 · 숫자부터

경쟁률이 오히려 낮습니다

「지역인재는 의대 얘기 아닌가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해당되는데도 모르고 안 쓰는 학생**이 나옵니다. 숫자를 보시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세어 보았습니다.

무엇	얼마나
지역인재 전형 줄	582줄
모집 인원	5,398명
이 전형을 두는 대학	10곳
경쟁률 중앙값	7.8:1
그중 의약학·간호	9%뿐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 — 의약학은 9%뿐입니다.** 나머지 91%는 공학·인문·사회·자연 계열입니다. 「**지역인재=의대**」는 뉴스가 의대만 다뤄서 생긴 오해입니다.

둘 — 경쟁률이 7.8:1로 낮습니다. 전체 교과(9:1)·학종(12.4:1)보다 낮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면 확인 자체가 손해가 아닙니다.** 되면 큰 이득이고, 안 되면 잃을 것이 없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을 저희가 집계.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이며, 개별 대학·학과 값은 신지 않습니다.

33 · 누가 쓸 수 있나

사는 곳이 아니라 다닌 곳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는 「지금 어디 사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학교를 다녔는가」로 봅니다.

무엇을 보나	어떻게
고등학교 소재지	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해야 합니다
재학 기간	전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학교까지	의약학은 중학교부터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학생·보호자 거주를 함께 보는 곳이 있습니다

「전 교육과정」이 걸림돌입니다. 고1을 다른 지역에서 다니고 전학 왔다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의약학은 조건이 더 셉니다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는 법으로 선발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만큼 자격 요건도 엄격합니다. 중학교부터 그 지역에서 다녔는지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는 매우 유리한 자리입니다. 경쟁 범위가 그 지역 학생으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확인으 서류로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초본이면 대개 확인됩니다. 초본에 주소 변동 이력이 다 나옵니다. 기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서류를 떼어 보십시오 — 이사한 해를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출처: 각 대학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지역인재 지원자격 및 관계 법령. **요건은 대학·계열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34 · 무엇이 열리나

계열이 넓습니다

지역인재 582줄이 어느 계열에 퍼져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계열	줄	무엇이 있나
자연	387	공학·자연과학·의약학·간호 — 가장 큼니다
인문	182	인문·사회·경영·교육
공동· 예체능	13	무전공·예체능

인문계도 182줄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과만 있는 것 아닌가」도 오해입니다.

어느 대학이 두나

10개 대학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그 지역 사립대**가 중심입니다. 수도권 대학에는 이 전형이 거의 없습니다 — **제도가 지역 대학을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남아서 대학을 다닐 생각이 있는가**」가 먼저이고, 그렇다면 **이 전형이 가장 넓은 문**입니다.

다른 전형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는 **수시 여섯 장 가운데 한 장**으로 씁니다. 같은 대학의 일반전형과 **함께 쓸 수 있는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 한 대학에 두 장을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요강의 중복지원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계열 구분은 요강 표기를 따랐습니다.

35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주민등록초본을 땀니다 — 주소 변동 포함	고3 여름 전
2	고등학교(필요하면 중학교)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같이
3	목표 대학 요강의 지역인재 자격을 읽습니다	요강 나온 뒤
4	애매하면 입학처에 물어봅니다	원서 전

4번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역인재 자격은 사례가 다양해서 요강 문장만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학, 검정고시, 해외 체류, 보호자 주소가 다른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입학처는 이런 문의를 늘 받습니다.

지역인재를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주민등록초본 을 떼어 주소 변동을 확인했는가
- ☐ 고등학교 전 과정 을 그 지역에서 다녔는가
- ☐ 전학 이력 이 있다면 요강 조건에 맞는가
- ☐ 의약학이라면 중학교까지 보는지 확인했는가
- ☐ 보호자 거주 를 함께 보는 곳인지 보았는가
- ☐ 내가 볼 계열에도 지역인재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 같은 대학 일반전형과 함께 쓸 수 있는지 보았는가
- ☐ 애매하면 입학처에 물어보았는가

첫째와 셋째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이사한 해를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본은 정부24에서 바로 땀 수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확인은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초본을 떼고 요강의 「지역인재 지원자격」 쪽을 읽으면 대개 답이 나옵니다. 삼십 분이면 하시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십 분을 안 해서 자격이 되는데 안 쓰는 학생이 해마다 나옵니다. 경쟁률 7.8:1 짜리 자리를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36 · 자주 묻는 것

지역인재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고1 때 다른 지역에서 다녔는데 안 되나요?

대학과 계열에 따라 다릅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하십시오.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졸업(예정)자」만 요구하면 됩니다. 이 한 줄 차이가 자격을 가릅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다릅니다. 같은 지역의 A대학은 되고 B대학은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한 곳에서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것으로 접지 마십시오.

의약학은 대체로 조건이 셉니다. 반대로 일반 계열은 험거운 곳이 많습니다. 계열별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역인재로 가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입학 뒤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학과, 같은 수업, 같은 졸업장입니다. 학적에 전형이 남지만 성적표나 졸업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학 일부에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처럼 졸업 뒤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논의되고 시행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약학 지역인재에 지원하실 때는 「의무 복무 조건이 붙는 전형인지」를 요강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 계열에는 그런 조건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지역인재는 **의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경쟁률이 오히려 낮습니다. **초본 한 장이면 해당 여부를 아십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관계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인재 자격 요건은 **대학·계열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개별 대학의 조건은 실지 않았으니 반드시 요강 원문과 입학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37 · 숫자부터**생각보다 작은 자리입니다**

「계약학과 가면 취업이 보장된다면서요.」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틀린 쪽에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무엇이 보장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가르겠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계약학과·채용조건형**으로 표시된 자리를 세었습니다.

무엇	얼마나
계약학과·채용조건 줄	49줄
모집 인원	948명
이런 자리를 둔 대학	10곳
경쟁률 중앙값	12.8:1

948명입니다. 수시 전체(6,482줄)에 견주면 **매우 작은 자리**입니다. 뉴스에는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적습니다**.

그러니 **계약학과를 목표로 3년을 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고 맞으면 한 장 쓰는 자리**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서 학과·전형 이름에 「계약학과·채용조건·채용연계」가 든 자리를 저희가 집계. **표기 방식이 대학마다 달라 실제 수는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38 ·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계약학과」라고 부르지만 **제도상 두 갈래**입니다. 이걸 가르는 것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갈래	누가 돈을 내나	취업은
채용조건형	기업이 학비를 냅니다	채용이 전제입니다 — 조건을 채우면
재교육형	이미 일하는 사람이 다닙니다	해당 없음 — 고졸 신입 지원 자리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지원하는 것은 **채용조건형**입니다. 재교육형은 **재직자가 다니는 과정**이라 결이 다릅니다. 요강에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장」에 붙는 조건들

채용조건형이라도 **졸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	어떻게
학점	일정 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학·자격	기준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턴·과정	정해진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의무 재직	입사 뒤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이 붙습니다
학비 반환	조건을 못 채우면 지원받은 학비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랫줄을 특히 보십시오. 기업이 학비를 대 주는 구조라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요강이 아니라 협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계약학과 조항 및 각 대학 학과 안내. 조건은 **대학·기업마다** 다릅니다.

39 · 무엇을 확인하나

협약서까지 보십시오

Q. 하나 — 어느 기업인가, 그 기업이 어떤가

4년 뒤에 그 기업에 갑니다. 그러니 그 기업이 어떤 곳인지가 학교 이름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실 것은 **업종·규모·근무지**입니다. 특히 **근무지**는 잘 안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 **4년 뒤에 어디서 살게 되는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Q. 둘 — 무엇이 「보장」인가

「채용 보장」과 「채용 우대」와 「인턴 기회」는 전혀 다릅니다. 홍보물에는 다 좋게 적혀 있으니 **협약 내용을 직접** 물어십시오.

물으실 말은 이렇습니다 — 「**졸업생 가운데 실제로 몇 %가 그 기업에 입사했습니까?**」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면 믿을 만하고, 「대부분」·「거의」로 답하면 한 번 더 물어셔야 합니다.

Q. 셋 —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가장 안 물어보는 질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학점을 못 채우면? 어학 기준을 못 넘기면? 마음이 바뀌어 다른 데 가고 싶으면? **학비를 물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럴 일 없겠지」로 넘기지 마십시오. 4년은 길고, 18살에 정한 진로가 22살에 그대로인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Q. 넷 — 그만두면 학교는 다닐 수 있나

계약을 벗어나도 **학점은 유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그 학과에 남는지 다른 과로 가는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이 끊기면 학비를 스스로**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아셔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협약 조건은 대학·기업·연도마다 다릅니다.

40 ·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물을 것	답에 따라
1	채용조건형인가 재교육형인가	재교육형이면 지원 자리가 아닙니다
2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가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3	보장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	숫자로 답을 받으십시오
4	못 채웠을 때 무엇을 무는가	학비 반환 조항을 보십시오
5	의무 재직이 몇 년인가	그 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학과는 학과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첫 직장을 고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18살에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계약학과에 원서를 넣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채용조건형 인지 요강에서 확인했는가
- ☐ 협약 기업이 어디 인지 아는가
- ☐ 그 기업의 근무지 가 어디인가
- ☐ 「보장」의 실제 내용 을 확인했는가
- ☐ 지난 졸업생의 실제 입사 비율 을 물어보았는가
- ☐ 유지해야 할 학점·어학 기준 이 무엇인가
- ☐ 못 채우면 학비를 물어야 하는가
- ☐ 의무 재직 기간이 몇 년인가

일곱째와 여덟째는 협약서를 봐야 나옵니다. 학과 사무실이나 입학처에 「협약 조건을 볼 수 있나요」라고 물으십시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학과를 「안전한 선택」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취업이 걸려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안심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일찍 정하는 선택입니다. 일찍 정하면 바꿀 때 치르는 값이 큼니다 — 학비 반환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매우 좋은 자리이고, 그게 아니면 좁은 자리입니다.

41 · 자주 묻는 것

계약학과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학비를 안 내니까 이득 아닌가요?

돈으로만 보면 이득입니다. 4년 등록금이 큰 돈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무엇을 주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개는 졸업 뒤 일정 기간의 근무입니다. 그 기간에 다른 기회를 못 잡는 것이 실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에 가고 싶어지거나,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오거나, 전공을 바꾸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산은 이렇게 하십시오 — 「등록금만큼의 값을 그 기간의 자유와 바꿀 만한가.」 집안 사정에 따라 답이 다르고,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Q. 경쟁률이 낮던데 노력할 만한가요?

경쟁률만 보고 고르시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계약학과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본 학생이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의무 재직이나 학비 반환 조항을 보고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은 경쟁률이 「덜 알려져서」가 아니라 「알아보고 안 쓴 사람이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썼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앞의 여덟 가지를 다 확인하시고도 여전히 가고 싶다면, 그때는 낮은 경쟁률이 진짜 기회입니다. 확인 없이 낮은 경쟁률만 보고 쓰는 것이 위험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계약학과는 **학과가 아니라 첫 직장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협약서를 보고 정하십시오.** 홍보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관계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집계는 이름으로 센 것이라 **실제 자리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협약 조건은 대학·기업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대학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이나 취업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42 · 숫자부터

세 장과 여섯 장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수능 성적으로 겨루는 것은 맞는데, **같은 점수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이 세 장뿐**이라 한 장의 무게가 수시보다 큼니다.

먼저 크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집 인원	원서	경쟁률 중앙	총원율 중앙
수시	67,153명	6장	9~36:1	75%
정시	42,919명	3장	5.7:1	42%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 — 정시 모집이 42,919명으로 작지 않습니다. 수시의 3분의 2쯤 됩니다. 둘 — 경쟁률이 **5.7:1**로 수시보다 낮습니다. 셋 — 총원율도 **42%**로 수시(75%)보다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원서가 세 장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세 곳에만 쓰니 지원자 수 자체가 적습니다. **대신 그 세 곳에 지원자가 정확히 몰립니다** — 수능 점수가 공개되어 있어 **모두가 비슷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 정시 5,261줄/40개 대학과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저희가 집계.

43 · 무엇이 다른가

미리 알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수시	정시
무엇으로	내신 · 서류 · 논술	수능 점수
몇 장	여섯	셋 — 가·나·다군에 하나씩
내 점수를	쓸 때 모릅니다(논술·면접이 남음)	이미 압니다
남의 점수를	모릅니다	분포를 압니다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훨씬 정확합니다

셋째와 넷째 줄이 정시의 성격을 정합니다. 점수가 나와 있고 분포도 공개되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는 「**잘 보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의 비중이 큼니다.

그런데 모두가 계산합니다

여기가 정시의 어려운 자리입니다.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남도 계산합니다**. 「여기가 유리해 보인다」는 판단을 수만 명이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마감 직전에 크게 움직입니다**. 낮아 보이던 곳에 마지막 몇 시간에 몰리는 일이 흔합니다. **수시보다 훨씬 심합니다** — 수시는 판단 근거가 흩어져 있지만 정시는 같은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시는 여섯 장이라 한 장이 어긋나도 다섯이 남습니다. 정시는 **셋뿐이고, 군이 다르면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장의 무게가 수시의 두 배인 셈입니다.

출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어디가 전형결과 집계. 지원 행태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44 · 무엇을 재나

내신이 거의 안 보입니다

정시가 수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내신을 대개 안 보거나 매우 작게 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좋았던 학생에게 정시가 다른 자가 됩니다. 3년치 기록이 아니라 하루의 점수로 봅니다.

이런 학생은	수시에서	정시에서
내신 낮고 수능 강함	문이 좁습니다	넓어집니다
내신 높고 수능 약함	유리합니다	좁아집니다
둘 다 보통	학종·논술을 봅니다	계산해 보면 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느 줄인지를 아는 것이 정시 준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줄이면 수시에 무게를 두셔야 하고, 첫째 줄이면 정시를 주력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개되는 값도 다릅니다

정시 입결에는 백분위 컷과 환산점수 컷이 나옵니다. 수시의 학생부 등급컷과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2026학년도 자료에서 평균 백분위 70%컷을 공개한 값을 보면 중앙값이 83 언저리였습니다. 다만 대학·학과에 따라 크게 벌어지므로 이 한 숫자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총원은 수시보다 덜 됩니다

정시 총원을 중앙값이 42%이고, 33%는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수시 교과(122%)와 견주면 크게 낮습니다.

까닭은 원서가 세 장뿐이라 중복 합격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시 예비번호는 수시만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집계. 개별 대학·학과의 컷은 실지 않습니다. 공개 범위가 대학마다 다릅니다.

45 ·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내가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봅니다	고2~고3
2	정시로 갈 수 있는 대략의 선 을 잡습니다	모의고사 뒤
3	수시 여섯 장을 그 선 위로 짍니다	9월 원서 전
4	수능 뒤 선 을 다시 잡습니다	11월
5	가·나·다 군에 하나씩 짍니다	12~1월

3번이 수시와 정시를 잇는 자리입니다. 앞서 다룬 대로 수시에 등록하면 정시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정시 선을 모르면 수시 여섯 장도 제대로 못 짍니다.

정시를 준비하며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내 **내신과 수능** 가운데 어느 쪽이 강한가
- ☐ 정시로 갈 수 있는 **대략의 선** 을 잡아 두었는가
- ☐ 수시 여섯 장이 **그 선보다 위** 인가
- ☐ 성적표의 **표준점수·백분위** 를 적어 두었는가
- ☐ 내가 **강한 영역** 이 무엇인지 아는가
- ☐ 목표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 을 보았는가
- ☐ **가·나·다**군 을 나눠 짍는가
- ☐ 정시 총원이 **수시보다 덜 돈다** 는 것을 아는가

둘째와 셋째를 **9월 전에** 하셔야 합니다. 수시 원서를 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가 안 되면 정시」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순서로 생각하면 9월에 수시 여섯 장을 잘못 짍니다 — 정시 선을 모른 채 쓰니까요. 정시는 수시의 대안이 아니라 수시를 짜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여름에 정시 선을 잡아 두시면 수시 원서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46 · 자주 묻는 것

정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정시 경쟁률이 낮으니 정시가 쉬운가요?

아닙니다. 경쟁률이 낮은 것은 원서가 세 장뿐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한 사람이 여섯 곳에 씁니다. 그래서 지원자 수가 부풀려집니다. 정시는 세 곳뿐이라 **같은 인원이 절반의 원서를** 냅니다. **경쟁률 숫자가 낮아지는 것은 산술의 결과**이지 난이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시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점수가 공개되어 있어 지원자가 정확히 몰립니다.** 수시는 판단 근거가 흩어져 있어 예상 밖의 일이 생기지만, 정시는 **비슷한 점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곳에 씁니다.**

그리고 **충원이 덜 듭니다**(42% · 33%는 아예 안 뛴). **예비번호를 수시만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Q.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만 준비해도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만 세어 보고 정하십시오.

모집 인원으로 보면 **수시 67,153명 대 정시 42,919명**입니다. 수시가 더 큼니다. 수시를 **아예 안 쓰면 그만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를 쓰는 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학종·교과는 이미 있는 생활기록부로 쓰고, 원서를 쓴다고 정시 준비가 **줄지 않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은 **논술과 면접**입니다 — 그건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 「수시를 포기」가 아니라 「**논술·면접이 없는 자리로 수시를 몇 장 쓴다**」가 대개 더 나은 계산입니다.

다만 **정시 선보다 낮은 자리는 쓰지 마십시오.** 붙으면 곤란해집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시는 수시의 대안이 아니라 수시를 따는 기준입니다. **정시 선을 먼저 잡으십시오.** 여섯 장이 그 위에 섭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와 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컷·경쟁률은 실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과 방식은 해마다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47 · 먼저 사실부터**군이 원서 수를 정합니다**

「정시는 세 장이라던데 아무 데나 세 곳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군에서 한 장, 나군에서 한 장, 다군에서 한 장입니다. 같은 군에 두 곳은 못 씁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 셋이 다 같은 군이면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군은 대학이 시험·면접을 치르는 기간으로 나뉩니다. 같은 군의 대학들은 **같은 기간에 전형을 치르니** 두 곳을 다닐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제약에서 나온 규칙입니다.

군	어떻게 정해지나	쓸 수 있는 원서
가군	대학이 스스로 정합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1장
나군		1장
다군		1장

「대학이 스스로 정한다」가 중요합니다. 군은 법이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이 학과마다 다른 군일 수 있고, 작년과 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대학은 나군이야」를 기억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해 요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 군 배치는 대학이 정하며 해마다 바뀝니다.

48 · 어디서 확인하나

군은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군별 전국 분포를** 심지 않습니다. 까닭을 밝혀 두겠습니다.

저희 정시 자료 **5,261줄** 가운데 군을 확실히 아는 것은 **40개 대학뿐**입니다. 나머지는 자료에 군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전국 분포는 이렇습니다」라고 쓰면 지어내는 것이 됩니다.

대신 **확인하는 법**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	어디서	무엇이 나오나
1	대학 정시 모집요강	모집단위별 군이 표 로 나옵니다
2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대학·학과로 찾으면 군이 함께 나옵니다
3	대학 전형계획	요강 전에 나옵니다 — 미리 볼 때

3번이 유용합니다. 정시 요강은 늦게 나오지만 **전형계획은 한 해 전에** 공개됩니다. 군 배치는 대개 전형계획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가고 싶은 학교를 **군별로 나눠 적어** 두시면 그게 곧 전략입니다. 종이 한 장에 **가·나·다 세 칸**을 만들고 후보를 채우십시오.

여기서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 한 칸이 비었거나, 한 칸에 다 몰려 있거나. **그걸 보고 후보를 더 찾는 것**이 정시 전략의 대부분입니다.

출처: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전형계획 및 대입정보포털. **저희 자료의 군 칸이 비어 있어 전국 분포는 심지 않았**습니다.

49 · 어떻게 나누나

세 칸의 성격이 다릅니다

세 장을 같은 무게로 쓰지 않습니다. 군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	대체로 어떤가	어떻게 쓰나
가군· 나군	대학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후보가 많아 고를 폭이 넓습니다
다군	대학이 적습니다	몰려서 경쟁률이 크게 됩니다

다군이 정시의 함정입니다. 대학이 적으니 다군에 쓸 만한 곳이 몇 안 되고, 그러면 모두가 그 몇 곳에 몰립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다군 경쟁률이 유난히 높은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다군을 「남는 한 장」으로 쓰지 마십시오. 세 칸 가운데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칸입니다.

충으로도 나눅니다

수시에서 안정·적정·소신을 나눈 것처럼 정시도 나눅니다. 다만 군이 먼저이고 충이 나중입니다 — 군은 못 바꾸고 충은 안에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례	무엇을
1	가고 싶은 곳을 군별로 나눅니다
2	다군부터 정합니다 — 후보가 적습니다
3	남은 두 칸을 충으로 나눅니다
4	한 칸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곳으로 둡니다

4번을 꼭 지키십시오. 세 장이 다 상항이면 다 떨어졌을 때 그해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수시와 달리 정시 뒤에는 추가모집밖에 없습니다.

군별 성격에 대한 설명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마다 대학의 군 배치가 바뀌므로 그해 요강으로 확인하십시오.

50 · 그래서 무엇을

짜는 차례와 점검표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세 칸을 그리고 채우십시오.

군	후보	총
가군		
나군		
다군		

정시 세 장을 찔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가고 싶은 곳의 군 을 그해 요강에서 확인했는가
- ☐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마다 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 ☐ 작년 군을 기억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 ☐ 세 칸이 다 채워졌는가 — 빈 칸이 없는가
- ☐ 다군 을 먼저 정했는가
- ☐ 한 칸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곳 인가
- ☐ 세 장이 다 상황 은 아닌가
- ☐ 그 자리에 붙으면 갈 것인가

셋째를 특히 보십시오. 군은 대학이 해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선배에게 들은 군으로 계산하면 원서를 못 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배치를 정리해 파는 자료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강과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고, 후보가 열 곳이어도 한 시간이면 정리하십니다. 돈을 쓰실 자리가 있다면 「내 점수로 그 자리가 되는가」를 상의하는 것이고, 군을 옮겨 적는 일은 집에서 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그해 요강을 직접 보시니까요.

51 · 자주 묻는 것

군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다군이 왜 경쟁률이 높은가요?

대학이 적기 때문입니다. 산술의 문제입니다.

가군과 나군에는 대학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다군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세 장을 다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적은 자리에 같은 수의 사람이 몰립니다. 경쟁률이 뛰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군에서는 「경쟁률이 높다」를 겁내지 마시고 「실제로 몇 명 뽑는가」를 보십시오. 경쟁률이 높아도 뽑는 인원이 크면 다를 수 있고, 소수 모집이면 경쟁률이 더 튀어 보입니다.

다만 총원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서 본 대로 정시 총원율은 중앙값 42%이고 33%는 한 명도 안 줍니다.

Q. 군을 옮겨 다니며 눈치작전을 할 수 있나요?

군마다 발표 시기가 다르니 이론상 가능합니다. 앞 군의 결과를 보고 다음 군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서는 세 군에 동시에 냅니다. 발표가 순서대로 날 뿐이지, 원서를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군 떨어지면 나군을 바꾸자」는 안 됩니다.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총원 단계에서 갈지 말지 정도입니다. 앞 군에 붙었는데 뒤 군이 더 마음에 들면 등록을 미루고 기다리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걸 위험합니다 — 등록 마감을 놓치면 앞 것도 잃습니다.

세 장을 낼 때 이미 순위를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붙으면 어디로 간다」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정시는 세 장이 아니라 세 칸입니다. 다군부터 정하시고, 한 칸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곳으로 두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군 배치는 대학이 해마다 정하므로 이 자료에 개별 대학의 군을 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원 연도의 요강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경쟁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52 · 먼저 사실부터**정시는 등급으로 겨루지 않습니다**

「수능 2등급이면 어디까지 되나요?」

정시에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정시는 등급으로 겨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2등급 안에서도 점수 차이가 크고, 그 차이가 당락을 가릅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세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뜻이 다 다릅니다.

무엇	무슨 뜻인가	정시에서
표준점수	평균에서 얼마나 위인가를 점수로	많이 씁니다
백분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몇 %인가	많이 씁니다
등급	백분위를 아홉 칸으로 나눈 것	수시 최저에 주로 씁니다

등급은 가장 거친 숫자입니다. 백분위를 뭉뚱그린 것이라 같은 등급 안의 차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에서는 성적표의 등급 칸을 보지 마시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보셔야 합니다. 등급만 보고 판단하면 자리를 잘못 잡습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 통지 방식. 정시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53 · 무엇이 다른가

표준점수와 백분위

둘 다 「잘 봤는가」를 재는데 재는 방식이 다릅니다.

	표준점수	백분위
무엇을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	내 아래에 몇 %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갑니다	거의 그대로
만점 근처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차이가 안 보입니다
과목 간 비교	어려운 과목이 유리	과목 차이가 줄어듭니다

둘째 줄이 정시의 큰 변수입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을 본 학생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해집니다**.

이건 내가 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 「**어려운 과목을 골라 표준점수를 노린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그 과목이 쉽게 나오면 반대가 됩니다.

셋째 줄은 상위권에서 걸립니다

백분위는 **100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만점 근처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백분위**가 됩니다. 백분위만 보는 대학에서는 그 차이가 안 보입니다.

표준점수는 그 차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표준점수를 보는 대학에서 갈리고, 중상위권은 백분위에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구는 또 다릅니다

탐구는 **과목마다 응시자가 달라 표준점수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탐구를 「**변환표준점수**」로 바꿔 씁니다 — 과목 간 차이를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이 변환표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같은 탐구 점수가 대학마다 다른 값이 됩니다.

출처: 평가원 성적 산출 방식 및 각 대학 정시 요강. 변환표준점수는 대학이 자체로 만들며 **해마다 다릅니다**.

54 · 어떻게 쓰이나

대학이 골라서 씁니다

대학은 셋 가운데 골라서 씁니다. 그리고 **영역마다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유리한가
표준점수만 씁니다	어려운 과목을 잘 본 학생
백분위만 씁니다	고르게 상위권인 학생
국·수는 표준점수, 탐구는 변환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영어는 가·감산으로	앞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몇이다」로는 지원할 곳을 못 정합니다. 「그 대학의 셈으로 내 점수가 몇이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 그 계산을 다루겠습니다.

성적표에서 적어 둘 것

수능 성적표를 받으시면 이것부터 옮겨 적어 두십시오.

영역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국어	☐	☐	☐
수학	☐	☐	☐
영어	—	—	☐
탐구1	☐	☐	☐
탐구2	☐	☐	☐

영어는 절대평가라 등급만 나옵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룬 대로 **대학이 등급을 점수로 바꿔** 씁니다.

2026학년도 정시 입결에서 **평균 백분위 70%컷**을 공개한 값의 중앙값이 **83 언저리**였습니다. 다만 **대학·학과에 따라 크게 벌어지니 이 한 숫자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집계 및 각 대학 요강. 개별 대학·학과의 컷은 실지 않습니다.

55 · 그래서 무엇을

읽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성적표의 세 숫자를 다 적습니다	대학마다 쓰는 것이 다릅니다
2	내가 어느 영역이 강한지 봅니다	백분위로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3	목표 대학이 무엇을 쓰는지 봅니다	요강의 수능 반영 방법
4	내 강한 영역을 크게 보는 곳을 찾습니다	같은 점수로 유리해집니다

4번이 정시에서 가장 큰 이득이 나는 자리입니다. 공부를 더 하지 않고도 **환산 점수가 올라갑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성적표를 받고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영역별 **표준점수** 를 적었는가
- ☐ 영역별 **백분위** 를 적었는가
- ☐ 탐구 **두 과목의 차이** 가 큰가
- ☐ 내가 **가장 강한 영역** 이 무엇인가
- ☐ 내가 **가장 약한 영역** 이 무엇인가
- ☐ 목표 대학이 **표준점수인지 백분위인지** 확인했는가
- ☐ 탐구를 **변환표준점수** 로 바꾸는 곳인가
- ☐ **등급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항목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정시에서 등급은 영어와 한국사에만 주로 쓰입니다. 나머지는 표준점수·백분위로 거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뒤에 급하게 「정시 컨설팅」을 계약하지 마십시오. 12월은 가장 비싸고 가장 급해 보이는 때라 판단이 흐려집니다. 먼저 **성적표의 세 숫자를 적고, 목표 대학 요강의 반영 방법을 견줘 보십시오. 하루면 하십시오**. 그것을 해 본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을 때 상담이 값을 합니다.

56 · 자주 묻는 것

수능 점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표준점수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가요?

내 안에서는 그렇고, 남과 견줄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표준점수는 그 과목이 어려웠는지에 따라 최고점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해에는 최고점이 높고, 쉬운 해에는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표준점수와 올해 표준점수를 그대로 견주면 안 됩니다.

선택과목 사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려운 과목을 본 학생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게 유리해 보이지만, 그 과목이 어려운 것은 시험 뒤에야 압니다.

그래서 「표준점수를 노리고 과목을 고른다」는 계산은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보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언제나 더 확실합니다.

Q. 탐구 두 과목 중 하나만 잘 봤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학이 몇 과목을 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지원할 곳을 고르는 실마리가 됩니다.

탐구 두 과목을 다 세는 곳이라면 평균이 내려가 불리합니다.

한 과목만 세는 곳이라면 잘 본 것만 쓰이니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탐구가 갈렸다면 「탐구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같은 점수로 훨씬 유리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변환표준점수를 쓰는 곳인지도 보십시오. 변환은 과목 간 차이를 줄이려는 장치라 불리한 과목의 손해를 덜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만 확인해도 지원 후보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시는 **등급이 아니라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거릅니다. **세 숫자를 다 적어 두고, 내 강한 영역을 크게 보는 곳을 찾으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성적 산출 방식과 전형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컷과 반영 방법은 신지 않습니다.

변환표준점수와 반영 비율은 대학·연도마다 다릅니다. 지원 전에 반드시 해당 대학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57 · 먼저 사실부터**같은 점수, 다른 결과****「제 점수로 어디까지 되나요?」**

이 질문에는 「어느 대학의 셈으로요?」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대학마다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적표를 놓고도 **A대학에서는 상위권, B대학에서는 중위권**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대학이 다르게 정하는 것이 **넷**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른가
영역별 반영 비율	국어 30 · 수학 40 처럼 가중치가 다릅니다
무엇을 쓰나	표준점수인가 백분위인가
탐구 셈	몇 과목 · 변환표준점수를 쓰나
영어·한국사	가산인가 감산인가 · 얼마나

이 **넷**을 곱하면 **대학마다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시는 「내 점수」가 아니라 「그 대학에서의 내 점수」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시에서 가장 큰 이득이 나는 자리입니다. 공부를 더 하지 않고도 유리한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의 수능 반영 방법. 대학·학과·연도마다 다릅니다.

58 · 무엇이 갈리나

반영 비율이 가장 큼니다

넷 가운데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 강하고 국어가 약한 학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의 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학생에게
A대학	20%	40%	20%	20%	유리합니다
B대학	35%	25%	20%	20%	불리합니다

같은 성적표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이건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열별로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계는 대체로 수학과 과탐을 크게 봅니다. 인문계는 국어와 사탐을 크게 보는 곳이 많습니다. 상경계는 수학을 크게 보는 곳이 혼합니다.

다만 이건 경향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같은 계열에서도 대학마다 다르니 반드시 요강으로 확인하십시오.

영어의 무게가 대학마다 크게 다릅니다

앞서 다룬 대로 영어는 반영 비율에 넣는 곳과 총점에 가·감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감산 방식에서는 등급 사이의 점수 차가 대학마다 크게 벌어집니다. 2등급에 거의 손해가 없는 곳과 뚜렷하게 밀리는 곳이 함께 있습니다. 영어가 아쉬운 학생은 감점이 작은 곳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표의 비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대학의 값이 아닙니다. 실제 비율은 각 대학 요강에서 확인하십시오.

59 ·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해 보시면 됩니다

환산점수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요강에 식이 적혀 있습니다.

차례	무엇을
1	요강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 을 찾습니다
2	표준점수인지 백분위인지 확인합니다
3	내 점수에 비율 을 곱해 더합니다
4	영어 가·감산 을 적용합니다
5	대학 서넛 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5번이 요령입니다. 한 대학만 계산하면 그 숫자가 큰지 작은지 모릅니다. 서넛을 나란히 놓아야 「어디가 나에게 유리한가」가 보입니다.

비교는 순위로 하십시오

대학마다 만점이 다릅니다. 1000점 만점도 있고 500점 만점도 있습니다. 환산점수 자체를 대학끼리 견주면 안 됩니다.

대신 「작년 컷과 내 환산점수의 거리」로 보십시오. 그 대학의 작년 70%컷이 900이고 내 환산이 905면 그 대학 기준으로 위입니다. 이 거리를 대학끼리 견주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다만 작년 컷은 작년 것입니다

앞서 수시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합격선은 그해 지원자가 만듭니다. 게다가 정시는 수능 난이도에 따라 점수대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작년 컷을 그대로 올해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아니라 「내가 작년 기준 몇 등쯤인가」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각 대학 정시 요강의 환산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이며, 대학마다 식이 다릅니다.

60 · 그래서 무엇을

견주는 차례와 점검표

종이 한 장에 대학을 가로로, 항목을 세로로 적으시면 됩니다.

항목	대학 1	대학 2	대학 3
국어 반영 비율	☐	☐	☐
수학 반영 비율	☐	☐	☐
탐구 반영 비율· 과목 수	☐	☐	☐
영어 처리 방식	☐	☐	☐
내 환산점수	☐	☐	☐
작년 컷과의 거리	☐	☐	☐

환산점수를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요강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 을 찾았는가
- ☐ **표준점수** 인지 **백분위** 인지 확인했는가
- ☐ 탐구를 **몇 과목** 세는가
- ☐ **변환표준점수** 를 쓰는 곳인가
- ☐ **영어** 가 비율인가 가·감산인가
- ☐ 대학 **서넛을 나란히** 계산했는가
- ☐ 환산점수를 **대학끼리 직접 견주고** 있지 않은가
- ☐ 작년 컷을 **올해에 그대로** 대고 있지 않은가

일곱째를 조심하십시오. 만점이 다른 점수를 나란히 놓으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작년 컷과의 거리」로 견주셔야 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은 하루면 하십니다.** 요강에 식이 적혀 있고 곱하고 더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안 하고 상담부터 받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을 해 오시면 상담이 「어디를 쓸까」에서 시작합니다. 안 해 오시면 **첫 시간을 계산으로 씁니다.** 그건 아까운 시간입니다.

61 · 자주 묻는 것

환산점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계산기 서비스를 쓰면 되지 않나요?

쓰셔도 됩니다. 다만 결과를 그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계산기는 **대학이 공개한 식을 넣어 둔 것**이라 대체로 맞습니다. 문제는 **식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요강이 정정되거나 반영 비율이 달라지면 **반영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 몇 %**」를 보여 주는 서비스는 조심하십시오. 그 확률을 만들 근거가 공개 자료에는 없습니다. 앞서 다룬 대로 **합격선은 그해 지원자가 만들고, 그건 마감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계산은 계산기로,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자리 두셋은 요강을 직접 보고 손으로** 확인하십시오.

Q. 반영 비율이 유리한 곳만 골라 쓰면 되나요?

그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남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크게 보는 대학」은 **수학이 강한 학생이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수학 강한 학생이 몰려** 컷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리한 곳**」이 곧 「**쉬운 곳**」은 아닙니다. 유리한 것은 **같은 자리를 놓고 겨룰 때 내가 덜 손해** 본다는 뜻이지, 경쟁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반영 비율을 보는 것이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불리한 셈을 쓰는 곳에 쓰면 **확실히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손해를 피하는 것**까지가 이 계산의 값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시에서 내 점수는 하나가 아니라 **대학 수만큼** 있습니다. **서넛을 나란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면 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시 반영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비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대학의 값이 아닙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학과·연도마다 다르니 반드시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62 · 숫자부터**수시보다 덜 돕니다**

「정시도 예비가 많이 돈다던데요.」

수시 이야기를 정시에 그대로 대면 안 됩니다. 정시는 원서가 세 장뿐이라 **중복 합격이 적고, 그만큼 빈자리도 적습니다.** 숫자로 보시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2026학년도 자료로 견줘 보았습니다.

	충원율 중앙	100% 초과	한 명도 안 됨
수시 전체	75%	33%	17%
수시 교과	122%	—	—
정시	42%	17%	33%

세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 — 중앙값이 절반쯤입니다.** 수시 75%에 견주어 정시는 42%입니다.

둘 — 정원을 한 바퀴 넘게 채우는 곳이 적습니다. 수시는 33%인데 정시는 17%입니다.

셋 — 한 명도 안 도는 곳이 33%입니다. 셋 중 하나는 예비가 아예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 정시 예비번호는 수시만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67%는 돌기는 합니다 —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 정시 3,483줄을 저희가 집계. 총원 인원을 「명」 단위로 공개한 곳만 셧습니다.

63 · 무엇이 다른가

왜 덜 도는가

까닭이 구조에 있습니다. 원서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서	중복 합격	빈자리
수시	6장	한 사람이 둘셋에 붙습니다	많이 생깁니다
정시	3장	많아야 셋, 대개 하나들	적습니다

그리고 군이 또 한 번 줄입니다. 정시 세 장은 서로 다른 군이라 발표 시기가 다릅니다. 앞 군에 붙어 등록하면 뒤 군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자리는 뒤 군의 총원으로 돕니다.

거꾸로 다군은 가장 늦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 앞 군에 이미 붙은 사람이 빠져나가 총원이 도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마다 다릅니다

가군·나군은 대학이 많아 지원이 흩어지고, 다군은 적은 자리에 몰렸다가 앞 군 합격자가 빠지면서 돕니다.

다만 이건 경향이고 대학마다 다릅니다. 지원한 대학의 작년 총원 자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집 인원이 클수록 많이 돕니다

수시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많이 뽑는 자리가 많이 돕니다. 한두 명 뽑는 자리는 거의 안 돕니다 — 한 명이 빠져야 한 자리가 나는데 그럴 확률이 낮습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집계. 군별 경향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64 · 어떻게 읽나

번호가 아니라 비율로

수시에서와 같은 셈법입니다. **번호 ÷ 모집 인원**으로 보십시오.

이런 경우	필요한 총원율	가능성
100명 뽑는 곳 예비 20번	20%	중앙값(42%) 안이라 해 볼 만합니다
50명 뽑는 곳 예비 30번	60%	중앙값보다 위 — 반반입니다
20명 뽑는 곳 예비 25번	125%	17%만 넘으니 어렵습니다
5명 뽑는 곳 예비 3번	60%	소수 모집은 더 안 돕니다

맨 아랫줄을 보십시오. 계산으로는 60%인데 **실제로는 더 어렵습니다.** 소수 모집은 **중복 합격자가 나올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비율이 같아도 모집이 작으면 덜 돕니다.**

작년 자료를 보십시오

가장 정확한 것은 **그 대학·그 학과의 작년 총원 인원**입니다. 어디거나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해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한 해는 틀 수 있습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집계. 표의 사례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특정 대학의 값이 아닙니다.

65 ·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 동안의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예비번호를 모집 인원으로 나눕니다	발표 직후
2	그 학과의 작년 총원을 찾아봅니다	같이
3	대학의 총원 일정을 달력에 적습니다	같이
4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기간 내내
5	추가모집도 함께 알아 둡니다	2월

5번이 정시에만 있는 자리입니다. 정시 총원이 끝난 뒤에도 2월에 추가모집이 있습니다.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다시 뽑는 것이라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 장이 다 안 됐다고 그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시 총원을 기다리며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예비번호를 모집 인원으로 나눠 보았는가
- ☐ 필요한 총원율이 중앙값(42%) 안 인가
- ☐ 그 학과가 소수 모집 은 아닌가
- ☐ 작년 총원 인원 을 찾아보았는가
- ☐ 대학의 총원 차수와 기간 을 아는가
- ☐ 원서에 적은 전화번호 가 지금 쓰는 번호인가
- ☐ 전화가 오면 갈 것인지 정해 두었는가
- ☐ 2월 추가모집 일정을 알아 두었는가

일곱째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정시 총원 전화도 답할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그해는 끝입니다 — 추가모집에도 못 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번호를 받고 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하실 일은 번호를 나눠 보는 것과 전화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추가모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상담보다 값이 큼니다 — 그건 아무도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66 · 자주 묻는 것

정시 충원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앞 군에 붙었는데 뒤 군을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릴 수는 있지만 위험합니다. 등록 마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 군에 붙었는데 뒤 군이 더 마음에 들면 등록을 미루고 기다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앞 군 등록 마감에 넘기면 그 합격은 사라집니다. 뒤 군이 안 되면 둘 다 잃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낼 때 순위를 정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군에 붙으면 나군을 포기한다」를 미리 정해 두면 그 자리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말 뒤 군이 훨씬 낫다면 등록 마감과 뒤 군 발표 날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십시오.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날짜를 모른 채 기다리는 것이 위험합니다.

Q. 추가모집은 어떤 자리인가요?

정시가 끝난 뒤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2월에 다시 뽑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이미 다른 곳에 갔거나, 모집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대학이 얼마나 뽑을지는 그때 가야 압니다. 미달이 나와 뽑는 것이라 미리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나 정시에 등록한 학생은 못 씁니다. 그러니 「어디든 붙으면 등록」과 「추가모집까지 본다」는 다른 계획입니다.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2월까지 열려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고, 그때 대학별 공고를 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정시 총원은 수시의 절반쯤이고 셋 중 하나는 아예 안 줍니다. 번호를 비율로 읽고, 2월 추가모집까지 알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총원 인원과 예비번호는 신지 않습니다. 총원 절차와 추가모집은 대학·연도마다 다르니 해당 대학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추가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67 · 먼저 사실부터**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과인데 문과 학과에 써도 되나요?」

대학이 막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막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지 않아도 점수에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것이 교차지원 판단의 전부입니다.

먼저 「문과·이과」라는 구분이 제도에는 없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능에서 무엇을 골라 봤는가와 대학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만 있습니다.

대학이 하는 일	어떻게	결과
지정	「수학은 미적분/기하」로 못 박습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가산	특정 과목에 점수를 더해 줍니다	쓸 수는 있으나 밀립니다
제한 없음	무엇을 봤든 같게 셉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2027 수시 요강에서 센 바로는 **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 15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탐구를 과탐으로 지목한 자리가 525줄**입니다.

정시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정시는 요강이 따로이니 하셔야 합니다. 정시 요강에서 다시 확인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정시 요강은 따로이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시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68 · 무엇이 갈리나

두 방향이 다릅니다

교차지원은 방향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대체로 어떤가
미적분·과탐 → 인문계	대체로 열려 있습니다. 막는 곳이 드뭅니다
확통·사탐 → 자연계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정·가산이 걸립니다

한쪽으로만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교차지원」이라고 하면 대개 앞엿것을 가리킵니다.

앞엿것이 유리해 보이는 까닭

수학에서 미적분·기하를 본 학생의 표준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오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백분위여도 표준점수가 높아 인문계 지원에서 유리해집니다.

다만 이건 그해 시험에 달린 일입니다. 해마다 다르고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이것 알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 인문계에 지원할 때 사탐에 가산을 주거나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붙은 뒤가 남습니다

점수 계산에서 유리해도 4년을 그 전공으로 다닙니다. 수학·과학을 좋아해서 이과를 골랐는데 점수 때문에 인문계로 가는 것이 맞는지는 다른 물음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은 「점수가 아까워서」 쓴 교차지원이 1학년에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출처: 각 대학 정시 요강 및 평가원 성적 산출 방식. 유불리에 대한 설명은 해마다 달라지는 경향이며 단정할 수 없습니다.

69 · 무엇을 확인하나

요강의 네 자리

정시 요강에서 네 자리를 보시면 교차지원이 되는지 판가름합니다.

#	어디를	무엇을 보나
1	지원 자격	응시 과목을 못 박았는가
2	수능 반영 방법	지정 과목이 적혀 있는가
3	가산점	특정 과목에 몇 % 더해 주나
4	탐구 인정 범위	사탐·과탐을 다 받는가

3번이 잘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지정이 없어 「되는구나」 했는데 가산이 붙어 실제로는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은 대개 「미적분·기하 응시자에게 수학 점수의 ○%」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몇 %인지와 무엇에 붙는지를 보십시오
— 수학 점수에만 붙는지 총점에 붙는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 편에서 다룬 환산점수 계산에 가산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가산을 넣은 값과 안 넣은 값을 견주면 손해가 얼마인지 숫자로 나옵니다.

짐작하지 마시고 계산하십시오. 요강에 식이 다 적혀 있습니다.

출처: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 가산 방식과 비율은 대학·학과·연도마다 다릅니다.

70 ·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물을 것	답에 따라
1	지정이 있는가	있으면 못 씁니다
2	가산이 있는가 · 얼마인가	계산해 봅니다
3	가산을 넣어도 쓸 만한가	숫자로 답이 나옵니다
4	그 전공을 4년 다닐 수 있는가	여기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4번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1~3은 계산이라 답이 나오지만, 4번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4년을 정하는 것은 4번입니다.

교차지원을 생각할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정시 요강 을 봤는가 — 수시 요강이 아니라

☐ 응시 과목에 지정 이 있는가

☐ 가산점 이 붙는가 · 몇 %인가

☐ 가산이 수학에만 붙는가 총점에 붙는가

☐ 탐구 를 사탐·과탐 다 받는가

☐ 가산을 넣어 환산점수를 계산 해 보았는가

☐ 계산해도 쓸 만한 자리 인가

☐ 그 전공을 4년 다니고 싶은가

첫째를 특히 보십시오. 수시와 정시는 요강이 다릅니다. 수시에서 제한이 없어도 정사에서 지정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지원으로 한 단계 올려 가자」는 권유를 조심하십시오. 점수 계산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 4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은 1학년에 「내가 왜 여기 있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점수가 아까워서 쓰는 원서보다 다니고 싶어서 쓰는 원서가 3년 뒤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71 · 자주 묻는 것

교차지원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교차지원이 해마다 유리한가요?

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유불리는 그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건 누가 어느 과목에 몰렸는지에 달려 있고, 시험이 끝나야 압니다.

그리고 대학이 조정합니다. 한쪽이 유리해지면 다음 해에 가산이나 지정을 넣는 대학이 나옵니다. 유리함이 오래 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교차지원이 유리하다」를 전제로 과목을 고르지 마십시오. 앞서 다룬 대로 내가 잘 보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언제나 확실합니다. 교차지원은 성적이 나온 뒤에 판단할 일입니다.

Q. 교차지원으로 들어가면 수업을 못 따라가나요?

전공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인문·어문 계열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과목과 대학 전공이 이어지는 정도가 약해서 누구나 새로 시작하는 면이 있습니다.

상경 계열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에 수학이 많이 쓰입니다. 오히려 미적분을 본 학생이 유리한 자리입니다.

반대 방향(확통·사탐 → 자연계)은 훨씬 어렵습니다. 공학·자연과학은 미적분이 1학년부터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정으로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갈 수 있는지는 그 학과 1학년 교육과정을 보시면 대략 압니다. 수학 과목이 몇 개인지 세어 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교차지원은 되는가(지정) · 손해인가(가산) · 다닐 만한가(4년) 셋으로 정합니다. 앞의 둘은 계산이고, 마지막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 집계와 제도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시 요강은 수시와 따로이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가산은 대학·학과·연도마다 다르니 반드시 정시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유불리를 예측하거나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

72 · 먼저 사실부터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

「한 해 더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희는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파는 말입니다. 대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뀌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표를 놓고 정하시면 됩니다.

무엇	바뀌나	뜻하는 것
수능 점수	바뀝니다	재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내신	안 바뀝니다	3년치가 그대로 남습니다
생활기록부	안 바뀝니다	졸업하면 닫힙니다
학종 지원	가능하나 불리	3년치가 이미 고정입니다
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개편 시기와 겹치는지 보십시오

둘째·셋째 줄이 핵심입니다. 재수는 수능을 다시 보는 선택이지 수시를 다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가 안 됐으니 재수」 는 논리가 어긋납니다. 재수해도 수시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재수가 값을 하는 것은 「수능을 더 올릴 수 있다」 가 분명할 때뿐입니다.

출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제도 변경 여부는 그해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73 · 무엇을 세어 보나

판단은 셋으로 갈립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쓰는 세 가지 물음입니다. 순서대로 답해 보십시오.

Q. 하나 — 올해 수능이 내 실력이었나

평소 모의고사와 견주십시오.

수능이 평소보다 크게 낮았다면 — 아직 안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긴장·컨디션·실수라면 **한 해 더 해서 나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나왔다면 — 그것이 지금 실력에 가깝습니다. 올리려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는 답이 아닙니다.

Q. 둘 — 지금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아는가

이걸 모른 채 정하는 재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앞 편에서 다룬 대로 **환산점수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계산해 보지 않고 「**이 점수로는 갈 데가 없다**」고 단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넛만 계산해 보셔도 그림이 달라집니다. 내 강한 영역을 크게 보는 대학을 찾으면 **생각보다 위쪽이 열려**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고도 남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재수를 이야기하십시오.

Q. 셋 — 1년의 값을 세어 보았는가

비용과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해에 얻었을 것도** 함께 읽습니다.

대학 1학년, 그 나이의 시간, 그리고 **또래보다 한 해 뒤에 시작하는 것**. 이걸 손해로 볼지 아닐지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재수가 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오르는 학생도 있고 그대로인 학생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만큼은 나오겠지**」도 보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안 올랐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미리 물으십시오. 그 답이 「아니오」면 **지금 갈 수 있는 곳을 다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재수 결과에 대한 통계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믿을 만한 공개 자료가 저희에게 없습니다**.

74 · 반수는 또 다릅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의 셈

반수는 대학에 다니면서 수능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재수와 얻는 것도 잃는 것도 다릅니다.

	재수	반수
안 됐을 때	그해가 빡니다	다니던 학교가 남습니다
공부 시간	온종일	수업과 나눠 씁니다
학적	없습니다	휴학·재학을 정해야 합니다
등록금	—	다니면 한 학기치가 나갑니다

첫째 줄이 반수의 가장 큰 값입니다. 안전판이 있는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이라 부담이 다릅니다.

둘째 줄이 가장 큰 대가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면 시간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야 하는 학생에게는 반수가 어렵습니다.

휴학 시기를 확인하십시오

1학년 1학기에 휴학이 안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는 다녀야 합니다. 등록금과 시간이 거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휴학 기간에 제한이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반수를 생각하신다면 입학 전에 학칙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리고 정시만 남습니다

재수와 마찬가지로 수시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반수는 준비 시간이 적어 논술을 넣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정시 한 갈래로 좁아진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출처: 대학 학칙 일반. 휴학 규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대학 학칙을 확인하십시오.

75 · 그래서 무엇을

정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지금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셉니다	성적표 받은 뒤
2	정시 세 장을 제대로 씁니다	12~1월
3	2월 추가모집까지 봅니다	2월
4	그래도 아니면 그때 정합니다	2~3월

1~3을 건너뛰고 4로 가지 마십시오. 12월에 정하는 재수와 2월에 정하는 재수는 다릅니다. 12월에는 아직 정시 결과도 추가모집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대충 쓰고 재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세 장을 제대로 쓰고 나서 결과를 보고 정하십시오.

재수·반수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올해 수능이 평소보다 낮았는가
- ☐ 낮았다면 까닭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가
- ☐ 올리려면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답할 수 있는가
- ☐ 지금 갈 수 있는 곳 을 계산해 보았는가
- ☐ 정시 세 장을 제대로 썼는가
- ☐ 2월 추가모집 까지 보았는가
- ☐ 안 올랐을 때 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 ☐ 반수라면 휴학 규정 을 확인했는가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답이 아닙니다. 올해 안 된 까닭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가 있어야 한 해가 값을 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를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학원은 재수생을 받으면 한 해를 더 가르칩니다 — 권할 이유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보시고, 그래도 아니라면 그때 오십시오. 세어 보지 않고 시작하는 재수가 가장 많이 후회로 끝납니다.

76 · 자주 묻는 것

재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재수하면 학종은 아예 못 쓰나요?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리합니다.

학종은 3년치 생활기록부를 읽는데, 졸업생은 그것이 이미 담혀 있습니다. 재수 기간에 무엇을 해도 생활기록부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 졸업생을 안 받는 학종이 있습니다. 요강에 적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수생은 수능 비중이 큰 자리로 갑니다 — 정시, 그리고 최저가 높은 교과·논술입니다. 수시 36,272명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를 걸고 있으니 수능이 오르면 그쪽도 함께 열립니다.

「재수=정시」 만은 아닙니다. 다만 학종은 접고 계산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Q. 제도가 바뀐다는데 재수해도 되나요?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자리입니다.

대입 제도가 바뀌는 해에는 재수생이 새 제도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하던 것과 시험 범위나 과목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재수하면 어느 제도로 보는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교육부 발표와 평가원 시행계획에 나옵니다.

제도가 바뀌는 첫해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출이 없고 난이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재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 자료 가운데 제도 변화를 다루는 편이 따로 있습니다. 재수를 생각하신다면 그것부터 읽어 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재수는 수능을 다시 보는 선택이지 수시를 다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본 뒤에 정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제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수 결과에 대한 통계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믿을 만한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이 자료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

77 · 숫자부터

세 장뿐입니다

「정시 원서 마감이 내일입니다.」

이 자료는 그 전날 보시는 것입니다. 정시는 세 장뿐이라 한 장의 무게가 수시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낸 뒤에는 못 바꿉니다.

앞 일곱 편에서 다룬 것을 한 장으로 모았습니다.

정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집 인원	42,919명
쓸 수 있는 원서	3장 (가·나·다군)
경쟁률 중앙값	5.7:1
총원율 중앙값	42%
총원이 한 명도 안 도는 곳	33%

맨 아랫줄을 기억하십시오. 셋 중 하나는 예비가 안 움직입니다. 「떨어져도 예비로 되겠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정시 집계. 개별 대학·학과의 값은 실지 않습니다.

78 · 먼저 넷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하나 — 지원 자격

- ☐ 정시 요강 을 봤는가 — 수시 요강이 아니라
- ☐ 응시 과목에 지정 이 있는가 (미적분·기하·과탐)
- ☐ 한국사 를 응시했는가 — 필수입니다
- ☐ 수시에 등록한 곳이 없는가 — 있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무겁습니다. 수시에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총원으로 등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 군

- ☐ 세 곳의 군 을 그해 요강에서 확인했는가
- ☐ 같은 군에 두 곳 이 들어 있지 않은가
- ☐ 세 칸이 다 채워졌는가
- ☐ 다군 을 남는 한 장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셋 — 점수

- ☐ 성적표의 표준점수·백분위 를 적었는가
- ☐ 세 곳의 반영 비율 을 확인했는가
- ☐ 환산점수 를 직접 계산해 보았는가
- ☐ 작년 컷과의 거리 로 견주었는가

넷 — 일정

- ☐ 군별 원서 마감 시각 을 시간 단위로 아는가
- ☐ 실기·면접 이 있으면 날짜가 겹치지 않는가
- ☐ 군별 발표일 과 등록 마감 을 달력에 적었는가

마지막 항목을 꼭 하십시오. 앞 군 등록 마감과 뒤 군 발표가 겹치면 그 자리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리 아셔야 합니다.

79 · 나머지 넷

판단 — 여기서 갈립니다

#	무엇을	왜
5	세 장을 총으로 나눴는가	다 상항이면 그해가 빡니다
6	한 장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곳인가	정시 뒤에는 추가모집뿐입니다
7	세 곳의 순위 를 가족이 정했는가	충원 전화는 시간이 짧습니다
8	붙으면 갈 자리 인가	등록하면 그해가 끝납니다

6번을 특히 지키십시오. 정시는 수시와 달리 뒤에 남는 것이 2월 추가모집뿐입니다. 그리고 추가모집은 어디가 얼마나 뿔을지 그때 가야 합니다.

그러니 세 장 가운데 하나는 「여기는 된다」 싶은 곳으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 상항으로 쓰는 것은 「재수를 계획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 그게 계획이라면 괜찮고,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순위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앞서 다룬 대로 앞 군 등록 마감과 뒤 군 발표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붙으면 저기는 포기한다」가 정해져 있어야 그 며칠을 흔들리지 않고 넘깁니다.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때 흔들립니다.

출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각 대학 정시 요강.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80 · 언제 무엇을

달력으로 보는 차례

언제	해야 할 것	늦으면
수능 직후	가채점 · 정시 선 잡기	수시 대응이 늦습니다
성적표 뒤	표준점수·백분위 적기 · 환산점수 계산	원서를 못 잡니다
원서 전	군 확인 · 세 칸 채우기 · 순위 정하기	못 고칩니다
원서 기간	마감 시각 · 서류 · 연락처	마감으로 끝
발표~충원	전화 받기 · 등록 마감 지키기	시간 단위
2월	추가모집 공고 확인	그해가 끝납니다

둘째 줄이 정시의 핵심 작업입니다. 성적표를 받고 하루를 들여 환산점수를 계산하시면 나머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덟 가지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격·군·마감은 요강을 읽으면 나오고, 환산점수는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컨설팅이 값을 하는 자리는 「세 칸에 무엇을 넣을까」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 오신 분과의 상담이 훨씬 깊어집니다 — 안 해 오시면 첫 시간을 계산으로 씁니다.

81 · 자주 묻는 것

정시 원서를 앞두고 하시는 질문

Q. 마감 직전 경쟁률을 보고 바뀌도 되나요?

정시에서는 특히 위험합니다.

수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는 더 심합니다. 모두가 같은 점수 자료를 보고 같은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낮아 보이는 자리에 다 같이 몰립니다.

그리고 정시는 군이 걸려 있습니다. 급하게 다른 대학으로 옮기면 군이 겹쳐 못 쓰게 될 수 있고, 반영 비율이 달라 환산점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마감 직전에 그 계산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쓸 자리는 미리 정하고, 마감 직전 숫자는 「세 칸 안에서 순서를 바꾸는 데」만 쓰십시오. 칸 자체를 갈아 끼우지 마십시오.

Q. 세 장을 다 써야 하나요?

세 칸이 다 채워지는 편이 낫습니다. 수시와 다른 점입니다.

수시는 여섯 장이라 맞는 자리가 넷이면 넷만 쓰셔도 됩니다. 정시는 셋뿐이고, 군이 다르면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칸을 비우면 기회가 3분의 1 줄어듭니다.

다만 정시 선보다 한참 낮은 곳을 억지로 채우지는 마십시오. 붙으면 가야 하고, 등록하면 추가모집도 못 씁니다.

그러니 「붙으면 갈 만한 곳」으로 세 칸을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칸을 채울 후보가 안 나오면 후보를 더 찾으십시오 — 앞 편에서 다룬 대로 반영 비율이 나에게 맞는 곳을 찾으면 후보가 늘어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시에서 잃는 것도 대개 실력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기 전 하루가 세 장을 살립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와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컷·경쟁률·군은 실지 않습니다. 요강과 일정은 대학·연도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 반드시 해당 대학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82 · 답으며

한 줄로 남기면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정시 세 장은 학과를 정하는 일과 같이 정해집니다. 합격선을 외우는 대신 구조를 아시면,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강을 읽는 일, 달력에 날짜를 찍는 일,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일 — 대부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해 보신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인쇄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나 모임에서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고르게 퍼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입시CUBE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학교·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대학의 최신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책은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